

초·중·고 학생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

이 인 숙* · 이 기 령¹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The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n Sook Lee^{*}, Kee Lyong Lee¹

¹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ABSTRACT

Purpose :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and the correlation among the three vari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Method :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otal 878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June, 18 to June, 29, 2007.

Results : The mean of appearance satisfaction was 29.8. Appearanc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chool, presence of par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friend. The mean of self-esteem was 77.9.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friend. The mean of school maladjustment was 54.3. School maladjust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friend. In the correlation among three variabl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bu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maladjustment, and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influencing factor on school maladjustment,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variables.

Conclusion : We should make regular education program and provide students through school classes which help recognize the value of their appearance and body which was given from their parents.

Key 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school maladjustment

(2008년 2월 25일 접수, 2008년 6월 19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Inn 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369-703, 154-1, Danpyung-Ri Gamgok-Myeun Eumsung-Gun Chungbuk Korea
Tel : 82-43-879-3428 Fax : 82-43-879-3426 E-mail : ilee001@kdc.ac.kr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외모는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젊은 여성뿐 아니라 노년 여성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서정희, 백재화, 김효철, 2004 재인용). 그러나 외모와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열등감 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고 심할 경우 자기부정, 자기비하, 자포자기와 같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아동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자아존중감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김은경, 2004).

특히 청소년기의 불안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은 몸매나 얼굴에 결함이 있을 때로써(강혜원과 김양진, 1992) 외모와 신체에 대한 자신감 상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곤란하게 하며 자기표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신감 상실이 또래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나 적대적 태도로 나타나게 하며 타인에 대한 의심 등의 현상을 유발하게 만든다(김은경, 2004).

청소년기는 신체의 빠른 성장과 2차 성징의 발달로 인해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변화된 신체에 따라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하고 이는 자기개념 형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Stuart, 1983).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자신감 및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불확실성, 열등감, 무력감 및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아동기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류광식, 2002).

청소년 초기의 영역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

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화와 김경연, 1998).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결과로써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배려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외모 및 신체상의 정립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따라 변화되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학령기와 사춘기 때 자신의 외모와 신체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미래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하에 초·중·고등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고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1개 기관, 중학교 1개 기관, 고등학교 2개 기관의 남녀 학생 8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모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외모만족 측정도구는 자신의 신체적인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경(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10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0~5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2였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김은경(2005)이 사용한 총 24문항의 도구로써 하위척도로는 일반적(7문항), 가정적(5문항), 사회적(7문항), 학교(5문항) 자아존중감의 4개 영역이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부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3) 학교생활 부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 부적응 측정도구는 김은경(200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척도는 자기표현의 두려움(5문항), 자신감 부족(5문항), 신체적·언어적 공격성(5문항), 적의성(4문항), 타인에 대한 의심(3문항)의 5영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0(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4(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반응하게 되어 있어 전체 반응 점수의 범위는 0~8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편의표집한 각 기관의 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반 별로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배포한 900부의 설문지 중 890부를 수거하였으며 분석에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878부(97.5%)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 점수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산출하였고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정은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교별로 볼 때 고등학생이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30.2%, 초등학생 26.8%의 순이었다. 성별에 있어 남학생의 비율이 44.6%, 여학생이 55.4%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92.9%였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는 97.0%였고 학교 성적은 '보통' 인 경우가 53.1%였으며 친구의 수에 대해 '보통' 이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878)

| 특성 | 구분 | N(%) |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 | 중학교 | 265(30.2) |
| | 고등학교 | 378(43.1) |
| 성별 | 남 | 392(44.6) |
| | 여 | 486(55.4)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 | 무 | 62(7.1) |
| 부모님 | 양친 | 852(97.0) |
| | 편친 | 26(3.0)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 | 보통 | 466(53.1) |
| | 나쁜 편 | 252(28.7) |
| 친구 | 많음 | 351(40.0) |
| | 보통 | 481(54.8) |
| | 적음 | 46(5.2) |

2.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29.8점(범위 10~50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학년, 부모님 생존여부, 학교성적, 친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F=20.4, p=.000$), 부모님이 모두 계신 군이편친인 군에 비해($t=2.0, p=.043$), 학교성적이 좋은 군이 보통이거나 나쁜 군에 비해($F=28.5, p=.000$), 친구가 많은 군이 보통이거나 적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5, p=.000$)<표 2>.

3.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77.9점(범위 30~120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F=10.4, p=.000$), 학교 성적이 좋은 군이 보통이거나 나쁜 군에 비해($F=44.1, p=.000$), 친구가 많은 군이 보통이거나 적은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56.1, p=.000$)<표 3>.

<표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 특성 | 구분 | N(%) | Mean±SD | t or F | p |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31.8±5.98a | 20.37 | .000*** |
| | 중학교 | 265(30.2) | 28.6±5.74b | | |
| | 고등학교 | 378(43.1) | 29.5±5.61b | | |
| 성별 | 남 | 392(44.6) | 30.2±6.02 | 1.76 | .078 |
| | 여 | 486(55.4) | 29.5±5.74 | | |
| 부모님 | 양친 | 852(97.0) | 29.9±5.89 | 2.03 | .043* |
| | 편친 | 26(2.9) | 27.5±4.91 | |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29.8±5.89 | .07 | .947 |
| | 무 | 62(7.1) | 29.8±5.60 | |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32.6±6.77a | 28.49 | .000*** |
| | 보통 | 466(53.1) | 29.7±5.20b | | |
| | 나쁜 편 | 252(28.7) | 28.3±5.84c | | |
| 친구 | 많음 | 351(40.0) | 31.7±6.35a | 33.52 | .000*** |
| | 보통 | 481(54.8) | 28.8±5.11b | | |
| | 적음 | 46(5.2) | 26.9±5.67b | | |
| 전체 | | 878(100.) | 29.8±5.87 | | |

* $p<.05$, *** $p<.001$, a, b, c : Scheffe test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자아존중감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자아존중감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학년, 성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초등학생 군(F=25.8 p=.000), 남학생(t=3.5, p=.000) 군, 성적이 좋은 군(F=48.9, p=.000), 친구가 많은 군(F=41.9,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학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초등학생 군(F=5.6 p=.004), 성적이 좋은 군(F=12.0, p=.000), 친구가 많은 군(F=3.7, p=.026)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학년, 성별, 형제유무,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 군(F=4.6 p=.010), 여학생 군(t=-2.5, p=.014), 형제

가 있는 군(t=2.1, p=.036), 성적이 좋은 군(F=23.1, p=.000), 친구가 많은 군(F=74.2,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성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 군(t=2.2, p=.029), 성적이 좋은 군(F=17.1, p=.000), 친구가 많은 군(F=26.6,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학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4.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대상자의 학교생활 부적응 점수의 평균은 54.3 (범위 22~110)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년, 성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 군이 초등학생과 고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n=878)

| 특성 | 구분 | N(%) | Mean±SD | t or F | p |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80.4±12.55a | 10.38 | .000*** |
| | 중학교 | 265(30.2) | 76.4± 9.64b | | |
| | 고등학교 | 378(43.1) | 77.9±10.42b | | |
| 성별 | 남 | 392(44.6) | 78.2±11.04 | .93 | .351 |
| | 여 | 486(55.4) | 77.6± 9.88 | | |
| 부모님 | 양친 | 852(97.0) | 77.9±10.41 | 1.65 | .099 |
| | 편친 | 26(2.9) | 74.5±10.45 | |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77.8±10.34 | -.06 | .949 |
| | 무 | 62(7.1) | 77.9±11.44 | |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83.9±11.53a | 44.09 | .000*** |
| | 보통 | 466(53.1) | 77.6± 9.37b | | |
| | 나쁜 편 | 252(28.7) | 74.5± 9.88c | | |
| 친구 | 많음 | 351(40.0) | 81.9±10.99a | 56.14 | .000*** |
| | 보통 | 481(54.8) | 75.7± 8.54b | | |
| | 적음 | 46(5.2) | 69.9±12.52c | | |
| 전체 | | 878(100.) | 77.9±10.42 | | |

***p<.001, a, b, c : Scheffe test

등학생 군에 비해($F=4.6, p=.011$), 남학생 군이 여학생 군에 비해($t=5.1, p=.000$), 학교 성적이 나쁜 군이 보통이거나 좋은 군에 비해($F=5.8,$

$p=.003$), 친구가 적은 군이 친구가 많거나 보통인 군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9.0, p=.000$)〈표 5〉.

〈표 4〉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자아존중감

| 특성 | 구분 | N(%) | 일반적 | 가정적 | 사회적 | 학교 |
|------|-------|-----------|------------------|------------------|------------------|-------------------|
| | | | Mean±SD | Mean±SD | Mean±SD | Mean±SD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23.3±4.22a | 18.8±4.32a | 23.3±4.18 | 14.9±3.40 |
| | 중학교 | 265(30.2) | 21.4±3.41b | 17.7±3.59b | 22.6±3.37a | 14.6±2.69 |
| | 고등학교 | 378(43.1) | 21.2±3.44b | 18.2±3.81 | 23.5±3.33b | 14.4±2.59 |
| | | | $F=25.8, p=.000$ | $F=5.6, p=.004$ | $F=4.6, p=.010$ | $F=2.9, p=.056$ |
| 성별 | 남 | 392(44.6) | 22.4±4.03 | 18.1±3.75 | 22.8±3.86 | 14.9±2.98 |
| | 여 | 486(55.4) | 21.5±3.48 | 18.2±3.85 | 23.5±3.37 | 14.4±2.76 |
| | | | $t=3.54, p=.000$ | $t=-.27, p=.788$ | $t=-2.5, p=.014$ | $t=2.2, p=.029$ |
| 부모님 | 모두 계심 | 852(97.0) | 21.9±3.77 | 18.2±3.77 | 23.2±3.61 | 14.6±2.87 |
| | 편친 | 26(2.9) | 21.2±3.23 | 16.9±4.89 | 14.6±2.87 | 14.2±2.98 |
| | | | $t=.92, p=.360$ | $t=1.71, p=.088$ | $t=1.37, p=.171$ | $t=.79, p=.425$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21.8±3.77 | 18.1±3.80 | 23.3±3.59 | 14.6±2.87 |
| | 무 | 62(7.1) | 22.1±3.54 | 18.6±3.89 | 22.3±3.72 | 15.0±2.88 |
| | | | $t=-.49, p=.628$ | $t=-.86, p=.389$ | $t=2.10, p=.036$ | $t=-1.09, p=.277$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24.3±4.03a | 19.2±3.74a | 24.7±3.96a | 15.7±3.09a |
| | 보통 | 466(53.1) | 21.6±3.45b | 18.3±3.71b | 23.1±3.36b | 14.6±2.77b |
| | 나쁜 편 | 252(28.7) | 20.8±3.47c | 17.4±3.86c | 22.3±3.49c | 14.0±2.71b |
| | | | $F=48.9, p=.000$ | $F=12.0, p=.000$ | $F=23.1, p=.000$ | $F=17.1, p=.000$ |
| 친구 | 많음 | 351(40.0) | 23.1±3.89a | 18.6±3.99 | 24.7±3.64a | 15.4±2.99a |
| | 보통 | 481(54.8) | 21.1±3.12b | 17.9±3.54 | 22.3±2.99b | 14.2±2.58b |
| | 적음 | 46(5.2) | 19.5±5.40c | 17.5±4.77 | 20.0±4.29c | 12.9±3.19c |
| | | | $F=41.9, p=.000$ | $F=3.7, p=.026$ | $F=74.2, p=.000$ | $F=26.6, p=.000$ |
| 계 | | | 21.9±3.76 | 18.2±3.81 | 23.2±3.60 | 14.6±2.87 |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n=878)

| 특성 | 구분 | N(%) | Mean±SD | t or F | p |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53.7±14.69a | 4.56 | .011* |
| | 중학교 | 265(30.2) | 56.1±10.86b | | |
| | 고등학교 | 378(43.1) | 53.3±11.16a | | |
| 성별 | 남 | 392(44.6) | 56.6±12.37 | 5.09 | .000*** |
| | 여 | 486(55.4) | 52.4±11.70 | | |
| 부모님 | 양친 | 852(97.0) | 54.2±12.17 | -.72 | .472 |
| | 편친 | 26(2.9) | 55.9±12.34 | |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54.2±12.01 | -.46 | .648 |
| | 무 | 62(7.1) | 54.9±14.29 | |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51.5±14.27a | 5.79 | .003** |
| | 보통 | 466(53.1) | 54.5±11.47b | | |
| | 나쁜 편 | 252(28.7) | 55.7±11.76c | | |
| 친구 | 많음 | 351(40.0) | 51.8±12.51a | 19.04 | .000*** |
| | 보통 | 481(54.8) | 55.3±11.27a | | |
| | 적음 | 46(5.2) | 61.9±13.99b | | |
| 전체 | | 878(100.0) | 54.3±12.17 | | |

* $p<.05$,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부적응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우선 자기표현의 두려움은 학년, 성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 군(F=5.1 p=.007), 남학생 군(t=2.4, p=.016), 성적이 나쁜 군(F=6.4, p=.002), 친구가 적은 군(F=30.2,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자기표현의 두려움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감 부족은 학년, 성별, 성적,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학생 군(F=6.9, p=.001), 남학생 군(t=2.5, p=.014), 성적이 나쁜 군(F=27.7 p=.000), 친구가 적은 군(F=22.4,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자

신감 부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은 학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학생 군(F=3.6, p=.027), 남학생 군(t=5.6,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적의성은 학년, 성별,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초등학교생 군(F=6.2, p=.002), 남학생 군(t=3.2, p=.001), 친구가 적은 군(F=11.2,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적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타인에 대한 의심은 학년, 성별, 친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학생 군(F=5.8, p=.003), 남학생 군(t=5.7, p=.000), 친구가 적은 군(t=11.1, p=.000)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6>.

<표 6>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 특성 | 구분 | N(%) | 자기표현의 두려움 | 자신감 부족 |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 적의성 | 타인에 대한 의심 |
|------|------|-----------|----------------|-----------------|----------------|----------------|-----------------|
| | | | Mean±SD | Mean±SD | Mean±SD | Mean±SD | Mean±SD |
| 학년 | 초등학교 | 235(26.8) | 12.2±4.21a | 11.5±3.76a | 12.8±3.98 | 10.1±3.69a | 6.9±2.85 |
| | 중학교 | 265(30.2) | 13.2±3.28b | 12.6±3.11b | 13.3±3.44a | 9.7±2.91 | 7.4±2.41a |
| | 고등학교 | 378(43.1) | 12.7±3.34 | 12.2±2.88b | 12.4±3.75b | 9.2±2.83b | 6.7±2.33b |
| | | | F=5.05 p=.007 | F=6.87 p=.001 | F=3.63, p=.027 | F=6.24, p=.002 | F=5.75 p=.003 |
| 성별 | 남 | 392(44.6) | 13.1±3.74 | 12.4±3.36 | 13.5±3.50 | 9.9±3.17 | 7.5±2.49 |
| | 여 | 486(55.4) | 12.5±3.45 | 11.9±3.10 | 12.2±3.80 | 9.3±3.06 | 6.6±2.46 |
| | | | t=2.42, p=.016 | t=2.47, p=.014 | t=5.58, p=.000 | t=3.24, p=.001 | t=5.74, p=.000 |
| 부모님 | 양친 | 852(97.0) | 12.7±3.59 | 12.1±3.24 | 12.8±3.70 | 9.6±3.14 | 6.9±2.51 |
| | 편친 | 26(2.9) | 12.9±3.43 | 13.2±2.67 | 13.1±4.62 | 9.1±2.53 | 7.6±2.76 |
| | | | t=-.31, p=.754 | t=-1.78, p=.076 | t=-.41, p=.681 | t=.82, p=.412 | t=-1.17, p=.244 |
| 형제유무 | 유 | 816(92.9) | 12.7±3.59 | 12.1±3.19 | 12.8±3.68 | 9.6±3.12 | 7.0±2.52 |
| | 무 | 62(7.1) | 13.0±3.64 | 12.3±3.70 | 13.1±4.33 | 9.7±3.28 | 6.8±2.48 |
| | | | t=-.58, p=.560 | t=-.42, p=.674 | t=-.79, p=.425 | t=-.34, p=.734 | t=.77, p=.444 |
| 성적 | 좋은 편 | 160(18.2) | 11.9±3.94a | 10.6±3.51a | 12.9±4.16 | 9.4±3.67 | 6.8±2.72 |
| | 보통 | 466(53.1) | 12.9±3.40b | 12.2±3.04b | 12.7±3.40 | 9.5±2.93 | 7.1±2.46 |
| | 나쁜 편 | 252(28.7) | 13.1±3.63b | 12.9±3.05c | 12.8±4.03 | 9.9±3.09 | 6.9±2.48 |
| | | | F=6.39 p=.002 | F=27.7 p=.000 | F=.19 p=.828 | F=1.64 p=.195 | F=1.38 p=.253 |
| 친구 | 많음 | 351(40.0) | 11.7±3.61a | 11.3±3.35a | 12.8±3.89 | 9.3±3.29a | 6.6±2.48a |
| | 보통 | 481(54.8) | 13.3±3.26b | 12.6±2.94b | 12.7±3.57 | 9.6±2.91a | 7.2±2.47a |
| | 적음 | 46(5.2) | 14.9±4.40c | 13.7±3.67c | 13.5±4.05 | 11.6±3.36b | 8.2±2.66b |
| | | | F=30.2, p=.000 | F=22.4, p=.000 | F=1.2, p=.295 | F=11.2, p=.000 | F=11.1, p=.000 |
| 계 | | | 12.7±3.59 | 12.1±3.23 | 12.8±3.73 | 9.6±3.13 | 7.0±2.52 |

(n=878)

5.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상관관계

1)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r=.564, p=.000$) 간에는 정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부적응($r=-.401, p=.000$),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r=-.580, p=.000$) 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7>.

<표 7>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 부적응 |
|-------|------------------|-------------------|
| 외모만족도 | $r=.564(p=.000)$ | $r=-.401(p=.000)$ |
| 자아존중감 | | $r=-.580(p=.000)$ |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모만족도는 일반적, 가정적, 사회적, 학교 자아존중감의 4개 영역 모두에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8>.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부적응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모만족도는 자기표현의 두려움, 자신감 부족,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타인에 대한 의심 등 학교생활 부적응의 5개 영역 모두에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9>.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과 학교생활 부적응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10>.

<표 8>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일반적 | 가정적 | 사회적 | 학교 |
|-------|------------------|------------------|------------------|------------------|
| 외모만족도 | $r=.516(p=.000)$ | $r=.318(p=.000)$ | $r=.449(p=.000)$ | $r=.388(p=.000)$ |

<표 9>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부적응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자기표현의 두려움 | 자신감 부족 |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 적의성 | 타인에 대한 의심 |
|-------|-------------------|-------------------|-------------------|-------------------|-------------------|
| 외모만족도 | $r=-.450(p=.000)$ | $r=-.379(p=.000)$ | $r=-.143(p=.000)$ | $r=-.277(p=.000)$ | $r=-.256(p=.000)$ |

<표 10>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자기표현의 두려움 | 자신감 부족 |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 적의성 | 타인에 대한 의심 |
|-----|-------------------|-------------------|-------------------|-------------------|-------------------|
| 일반적 | $r=-.454(p=.000)$ | $r=-.458(p=.000)$ | $r=-.130(p=.000)$ | $r=-.344(p=.000)$ | $r=-.224(p=.000)$ |
| 가정적 | $r=-.283(p=.000)$ | $r=-.286(p=.000)$ | $r=-.213(p=.000)$ | $r=-.257(p=.000)$ | $r=-.226(p=.000)$ |
| 사회적 | $r=-.548(p=.000)$ | $r=-.504(p=.000)$ | $r=-.095(p=.000)$ | $r=-.335(p=.000)$ | $r=-.301(p=.000)$ |
| 학교 | $r=-.500(p=.000)$ | $r=-.430(p=.000)$ | $r=-.217(p=.000)$ | $r=-.432(p=.000)$ | $r=-.304(p=.000)$ |

6.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29.801$, $p=.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는 .343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부적응에 자아존중감은 51.9% 영향을, 그리고 외모만족도는 10.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IV. 고 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이아영, 2007).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신체의 성장과 제2차 성징의 출현으로 외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의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김금숙, 2004)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장선철과 송미현, 2004).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군, 성적이 좋은 군, 친구가 많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 이전과 초기에 비해 사춘기 이후 여학생에게서 신체불만족과 부정적인 신체상 인식이 더 높다고 한 연구결과(Castro, & Goldstein, 1995)와 신체상 만족도가 남녀 모두 14세부터 낮아져 18세에서 높아진다는 정인영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한준상 등(2000)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신체가 불안한 상황일 때 외모만족도가 낮

으며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명과 이명희(1994)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에 불만족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병주 등, 2001; 최수진, 2004; Henderson, & Zivian, 1995)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비주얼(Visual) 시대인 오늘날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외모와 신체에 대하여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준 결과라 생각한다.

10대들은 자신이 동료와 다른 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진아, 2000),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매력을 지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기 보다는 타인이나 문화적 가치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아영, 2007).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평소 자기가 추구하는 신체상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깨달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기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가치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홍금희, 2006).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좋은 군, 친구가 많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초등학교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는 최정미와 김미란(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교에서

〈표 11〉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독립변수 | B | S.E. | β | t | Adj R ² | F |
|-------|---------|-------|---------|------------|--------------------|---------|
| 상수 | 108.168 | 2.536 | | 42.647*** | | |
| 외모만족도 | -.225 | .069 | -.109 | -3.282*** | .343 | 229.801 |
| 자아존중감 | -.606 | .039 | -.519 | -15.639*** | | |

***p<.001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은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가 높았던 이미령(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Hater(1990)는 11~12세 경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자아의식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만큼 자기평가 또한 엄격해진다는 것이다(송명자, 1998).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동에서부터 사춘기를 겪게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정규 교과목 내에 마련되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있어서는 중학생 군, 남학생 군, 성적이 나쁜 군, 친구가 적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좀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이혜령, 2000; 주현정, 1998)과 일치하며,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던 선행 연구결과들(양민철, 1995; 주현정, 1998)와도 일치하였다.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는 시기으로써 자아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학교생활에서 겪는 갈등과 좌절이 증가하고 비판의식 또한 발달하여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황이 잦아지며 학업스트레스와 친구, 동성 및 이성 동료집단에 있어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았던 것은 기질적으로 충동적 행동이 좀더 뚜렷하고, 공격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강화가 남성에게 더 많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모만족도와 학교부적응 간, 자아존중감과 학교부적응 간에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았던 연구결과는 외모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장선철과 송미현(2004)의 결과나 그 밖의 선행연구(김경아, 2003; 서윤경, 2003; 이아영, 2007)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구미희(1999)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인 신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인 사고 경향이 있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좀 더 주관적이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하위영역 간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모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선행연구들(김희화, 1998; 신진희, 2005; 정유진, 1999)과 일치하였다. 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장선철과 송미현(2004)의 연구결과와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 성향이 높았다는 김은경(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51.9%, 외모만족도는 10.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려는 자아존중감이야말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좀 더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외모지상주의로 급속히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의 비합리적인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 모두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자신의 외모와 신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규적이고도 지속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발달 단계에 따라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를 살펴보고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남녀 학생 878명이었다.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29.8점(범위 10~50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학년($p=.000$), 부모님 생존여부($p=.043$), 학교성적($p=.000$), 친구 정도($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77.9점(범위 30~120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p=.000$), 성적($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영역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학년($p=.000$), 성별($p=.000$), 성적($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학년($p=.000$), 성적($p=.000$), 친구($p=.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학년($p=.010$), 성별($p=.014$), 형제유무($p=.036$), 성적($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교 자아존중감은 성별($p=.029$), 성적($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학교생활 부적응 점수의 평균은 54.3점(범위 22~110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년($p=.011$), 성별($p=.000$), 성적($p=.003$),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 부적응 영역 중 자기표현의 두려움은 학년($p=.007$), 성별($p=.016$), 성적($p=.002$),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감 부족은 학년($p=.001$), 성별($p=.014$), 성적($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은 학년($p=.027$), 성별($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적의성은 학년($p=.002$), 성별($p=.001$),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은 학년($p=.003$), 성별($p=.000$), 친구($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r=.564$, $p=.000$) 간에는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부적응($r=-.401$, $p=.000$),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r=-.580$, $p=.000$) 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51.9%, 외모만족도가 10.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 강혜원,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구미희(1999). 청소년기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6-35, 서울.
- 구자명, 이명희(1994). 남·여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김경아(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1-41, 서울.
- 김금숙(2004).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31, 서울.

- 김은경(2004).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7-47, 춘천.
- 김희화, 김경연(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39.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0-48, 부산.
- 류광식(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5-39, 순천.
- 박진아(2000). 남녀 청소년에서 신체외형 선호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28, 서울.
-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0-57, 서울.
- 서정희, 백재화, 김효철(2004). 청소년 소비자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만족과 평가 및 자아존중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5(2), 53-68.
- 송명자(1998). 발달심리학. 346-356, 서울: 학지사.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47, 서울.
- 양민철(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27, 전주.
- 이미령(1996). 여고생의 자아존중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예비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32, 서울.
- 이병주, 김현, 양영도, 신준식, 허수성, 황혜현(2001). 일개 도서지역 고등학생들의 신체상 인식 및 관련된 문제점. 가정의학회지, 22(5), 683-689.
- 이아영(2007). 청소년의 외모복플렉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 논문, 20-35, 서울.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38, 대구.
- 장선철, 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정동화(1995). 아동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1-70, 서울.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27, 서울.
- 정인영(2000). 청소년기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36, 청원.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50, 서울.
- 최수진(2004). 청소년의 신체평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5-60, 서울.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3), 373-394.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3-226.
- 홍금희(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류산업학회지, 8(1), 48-54.
- Castro, J. M., & Goldstein, S. J.(1995). Eating attitude and behaviors of pre-and postpubertal females: Clues to the etiology of eating disorders. *Physiol Behav*, 58, 15-23.
- Harter, S.(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L. S. Feldman and G. Elliot(Eds). *The developing adolescent*. p. 352-38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nderson, K. A., & Zivian, M. T.(1995, March). The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body ima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 Stuart, A.(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